

송원대 앵커사업단, 멕시코서 K-pop 댄스로 문화교류

공연예술학과 주도...UTEQ·UNAM 대학생·현지인 참여
전공 역량과 K-콘텐츠 결합한 학생주도형 해외교류 평가

송원대학교 앵커사업단이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K-pop과 접목해 멕시코에서 글로벌 문화교류를 펼쳤다.

송원대 앵커사업단은 '광주형 로컬 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양성 사업'의 하나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멕시코 케레타로 지역에서 'K-브릿지 프로젝트: 송원대-UTEQ K콘텐츠 글로벌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AM)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송원대 공연예술학과 재학생 10명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멕시코 케레타로 공과대학교(UTEQ)

와 UNAM 대학생, K-pop에 관심 있는 현지 주민 등이 참여해 K-pop 댄스 워크숍과 합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교류했다.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공연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 기획과 진행, 참여자 소통, 현장 대응 등 프로그램 전반을 직접 맡아 실무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교류는 대학에서 익힌 전공 역량을 해외 현장에서 활용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학생 주도형 글로벌 교육의 사례로 평가된다. 김호연 송원대 앵커사업단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역량을 글로벌 현장에



송원대 앵커사업단은 '광주형 로컬 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양성 사업'의 하나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멕시코 케레타로 지역에서 'K-브릿지 프로젝트: 송원대-UTEQ K콘텐츠 글로벌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 직접 발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국제적 경험과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학생 주도형 해외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원대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현지 대

학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교육·학술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 분야를 비롯해 AI·

미래 모빌리티 등 대학의 주요 교육 분야와 연계한 국제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동신대학교 국제한국어학과는 최근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6 완도수산고 여름방학 한국어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실력 '쑥쑥'

겨울방학 이어 여름방학 맞춤형 교육...TOPIK 성과 지속

동신대학교 국제한국어학과(학과장 노병호)가 완도수산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이어가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동신대에 따르면 국제한국어학과는 여름방학 중 완도수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6 완도수산고 여름방학 한국어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주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겨울방학에 실시한 한국어 향상 교육의 후속 과정으로, 학생들의 학년과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심화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동신대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총 76시간의 집중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한국어 능력 향상은 물론 진로 탐색과 한국 문화 체험까지 아우르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프로그램인 한국어 수업은 총 58시간에 걸쳐 1학년반과 2학년반으로 나눠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동신대 앵커사업단 'J-글로벌 인재 허브센터'의 지원을 받아 멘토와 학생을 매칭하고 자기 이해, 직업 카드를 활용한 진로 탐색, 진로 로드맵 작성, 롤플레이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노병호 동신대 국제한국어학과장은 "겨울방학의 기초·TOPIK 교육을 여름방학의 심화교육으로 연결하면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한국어 능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현천 기자 pose007@

광산구, 청렴 실천... 일상적 조직문화 정착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자치시 광산구가 청렴을 실천하는 일상적인 조직문화 정착에 나선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10월 16일까지 8주간 '청렴문화 확산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첫 실천으로 구는 지난 24일 청사 1층에서 '청렴광산 365 캠페인'을 펼쳤다. 출근하는 공직자들에게 '직장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이 명시한 '8대 갑질 금지 행위', 상호 존중 등 청렴 핵심 가치를 알렸다.

이어 전 부서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 동참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집중 기간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특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 9월3일 오후 2시 청사 7층 운상실에서 청렴콘서트를 연다.

구는 또 각 부서와 21개 동을 찾아가는



전남광주특별자치시 광산구가 오는 10월 16일까지 8주간 '청렴문화 확산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최근 청사 1층에서 이뤄진 '청렴광산 365 캠페인' 모습.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문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청렴의 의미, 공직자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공직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구는 또 각 부서와 21개 동을 찾아가는

'청렴 소통 연수(워크숍)', '청렴다방'을 운영한다. 업무 현장의 고충,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렴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공정과 배려의 가치를 새기는 다양한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병규 구정장은 "청렴은 서로를 존중

'청렴문화 확산 집중기간' 운영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초청강연

하고 원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8주간의 집중 기간이 건강한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광산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실천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gwangnam.co.kr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어르신 건강 돌봄

진료·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의료봉사활동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이 최근 곡성문화센터에서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형외과, 한방과 등 다양한 진료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료진은 군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영양제 처방을 비롯한 주사 치료와 물리치료, 한방 침 시술, 약 처방 등을 실시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곡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나주대학교 사회복지사 10여명과 병원 직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치매지원사업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의료봉사와 함께 다양한 재능기부도 펼쳤다. 곡성군에서 활동하는 소리사랑예술단은 군민들을 위한 흥겨운 노래마당을 마련해 행사 분위기를 띄웠으며, 광주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이 최근 곡성문화센터에서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일아트 봉사단은 네일아트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곡성희망나눔봉사단은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의 안례를 받아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원은 서울 소재 의료법인 정에의료재단이 2024년부터 위탁 운영한 이후 매년 군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곡성=김유민 기자 hnnews1@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어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레이터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ონსე (음력 7월 14일)

쥐

토끼

말

돼지

48년생 신병 조심하고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60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참으라
72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84년생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에 작용할 것
96년생 집 밖에서 소득을 얻을 때다

51년생 남에게 베푸는 은정이 따듯하다
63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많이 나타난다
75년생 자신의 분수대로 인형하면 된다
87년생 금전 지출하지 말고 아껴 두라
99년생 물라도 될 일을 알게 돼 걱정하리라

54년생 쇠잔했던 운로가 소생하기 시작한다
66년생 배우자를 찾지 말 것이라
78년생 현재 있는 그대로 보이라
90년생 공격하면 재앙이 없다

57년생 천인척과 돈 거래를 삼가라
69년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
81년생 마음이 넉넉한 날이다
93년생 가족의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라

49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손해 따른다
61년생 결혼 기반해도 실상은 부자다
73년생 재물이 늘어나고 부귀한 생활 누린다
85년생 그 생각은 옳지 않으니 빨리 바꾸라
97년생 협조자가 들어올 것

52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다
64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76년생 인찰이나 경매에 참여하라
88년생 도움 요청에 지인의 회답이 없을 것

55년생 근심하지 말라 그것은 해결되리라
67년생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79년생 긴장을 늦추지 말자
91년생 상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58년생 충격적인 소식에 머뭇거리게 될 것이다
70년생 지인에게 도움을 빌리면 모두 잘될 것
82년생 안에서나 밖에서나 좋은 기운이다
94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하다

50년생 소문 믿고 얘기하다 다들이 생긴다
62년생 선충후길하니 집안이 평온해진다
74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겠다
86년생 배우자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주의
98년생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될 것이다

53년생 관계를 떠나 냉정히 돌이켜 볼 일이다
65년생 물고기가 출현해 이해할 수 있는 형상
77년생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된다
89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56년생 정신적 피곤함을 주의하라
68년생 특별히 집어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80년생 작은 성의라도 돌려주라
92년생 책임 완수에 최선을 다할 때다

59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한다
71년생 내색하지 않음이 더 나을 것이다
83년생 잘못된 가치를 하라시킬 것이다
95년생 취직의 길이 열리겠다